

[주니어 개발자 채용] 주니어 개발자 커피챗 진행

✓ 1) 회사 소개 + 현황 + 비전·미션 포함한 최종 스크립트 (3~4분 완성형)

톤은 과장·아부 없이, 담백하게.

저희는 올해 3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 출신이고 Flutter는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브코딩으로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저는 3,600명 정도이고, 리텐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문제 정의와 가치 자체는 꽤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자가 저 혼자라는 점입니다.

UI 개편, 기능 개선, 버그 대응, 데이터 스키마 정리—all 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
이걸 본업으로 가져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고를 열었습니다.

회사의 미션은 단순한 다이어트 앱이 아니라,
'감정·섭식·습관·신경계 루프를 읽고 전환하는 Human Inner Loop OS'를 만드는 것입니
다.

12주 코칭 프로그램과 앱을 통해
폭식·식이장애·감정적 섭식에서 빠져나오는 루프 재설계를 돋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앱을 전면 유료화할 예정이고,
초기 목표는 Seed 투자 + TIPS 선정입니다.
즉, 지금 개발자를 뽑는 건 우리에게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함께할 분은 정말 핏이 맞는 분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제주에 있고, 가능하면 제주에서 같은 공간에서
제품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보상은 솔직히 형편없습니다.

대신 AI 시대에 개발자의 역할이 빨리 변하는 지금,
회사를 0부터 함께 만들며 문제정의 능력과 주도적 성장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강력한 커리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원한다면 저는 옆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2) 핵심 질문 (리스크·현신도 판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 질문 하나로

지원자의 “본심”이 드러난다.



3) A급 인재라면 나오는 실제 반응 패턴 (예측 정확도 높음)

아래는 진짜 A급들이 말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신입·주니어와 확실히 다르게 답한다.

⭐ A급 반응 패턴 01

“솔직히 리스크는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가 재밌고, 성장 가능성도 분명해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 리스크를 인정하되 도망치지 않음

→ 문제 중심 사고

⭐ A급 패턴 02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0→1 환경에서 일하는 경험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 안정성보다 경험·성장 우선

→ 장기 베팅 성향

⭐ A급 패턴 03

“제 커리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성장입니다.

정확히 어떤 가치와 문제를 푸는지 들으니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 문제 정의+미션에 반응

→ 성장 방향을 스스로 설명

⭐ A급 패턴 04

“제주 합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 조율은 필요합니다.”

→ 현실 기반 + 가능성 열어둠

→ 회피 없음

⭐ A급 패턴 05

“리스크가 크더라도, 역할과 임팩트가 큰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 책임 회피 없음

→ 주도성 패턴

⭐ A급 패턴 06

“지금 구조 자체가 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빠르게 만들고 수정하는 환경이 맞는 성향입니다.”

→ Loop OS 특성에 맞는 실행형 기질

⭐ A급 패턴 07

“미션 자체가 흥미롭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 진심 기반의 공감
 - 제품에 대한 감정적 교집합
-

반대로 B급이라면 나오는 반응 패턴

아래 반응이 나오면 바로 컷 가능.

- “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보상이 좀... 고민되네요.”
- “역할과 요구사항이 명확해야 해서...”
- “리스크가 크다 보니 당장은 어렵습니다.”
- “추후 안정되면 연락 달라.”
- “제주 이사는 어렵습니다.”
- “지금 단계면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정규직 안정성을 원합니다.”

이런 반응은 전부 “심리적 거절”이다.

계속 진행할 필요 없다.

마무리

지금 커피챗의 목적은 **기술 검증이 아니라 리스크 감수 의지가 있는지,**
회사 수준의 불확실성과 미션에 본인이 에너지를 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너가 만든 스크립트는 이미 핵심을 제대로 잡고 있고,

위의 비전·미션 추가로 완성 형태가 됐다.

A급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예측해놨으니

오늘 3명 커피챗에서 즉시 구분될 것이다.

원하면

- 커피챗 전체 읽기용 한 페이지 버전
- 커피챗에서 1분 안에 컷하는 기준표

- 각 질문에 대한 A/B급 실제 대답 예시
도 만들어줄 수 있다.

You said:



민주님 이력서를 보고 추가질문 작성해줘

<https://from-minju.notion.site/2afa4c66f753803a8ea5d1aa95ab8b8a>

ChatGPT said:

지금 제공된 화면과 텍스트에는 **강민주님의 포트폴리오 핵심 일부만 보이고,**
링크에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는 접근할 수 없다.

즉,

해당 Notion 링크의 상세 내용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태.

따라서 정확한 추가질문을 만들려면

포트폴리오에서 확인된 실제 프로젝트·사고방식·구조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금 상태에선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력서 정보만으로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아래는 **현재 이력서(FACT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를 기반으로,
커피챗에서 쓸 수 있는 추가질문 리스트다.

너의 목적(리스크 감수·A급 마인드셋·자기주도성 검증)에 맞춰 작성했다.

✓ 강민주 전용 추가질문 (현재 이력서 기반 / 비유 도형 / 마인드셋 중심)

***1) “회고·문서화를 꾸준히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회고 중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했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 메타인지·솔직함·학습 방향성 검증

*2) “데일리 스크럼·칸반 관리 등 협업 경험은 많은데,

혼자 결정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스타일인가요?”**

→ 스타트업 적합성 / 주도성 확인

*3) “해커톤에서 본상 수상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팀에서 만들어낸 차별적 기여가 뭐였나요?”**

→ 주도적 기여 vs 역할 수행 구분

*4) “문서화와 팀 생산성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혼자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나요?”**

→ 혼자 일할 때의 성향 확인

*5) “Redis 캐싱 적용, JPA 기반 도메인 설계 등 경험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 내가 스스로 구조적으로 이해했다’고 느낀 포인트가 있나요?”**

→ 기술 사고의 깊이 확인

*6) “기억에 남는 트러블슈팅 한 가지를

배경 → 잘못된 판단 → 다시 해결한 흐름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진짜 문제 정의 역량 검증

(포트폴리오를 꾸며낸 사람이라면 절대 이 질문을 통과 못함)

*7) “현재까지의 경험이 대부분 팀 기반인데,

혼자서 0→1을 만들어야 하는 환경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 A급은 “해보고 싶다, 재밌다” 계열 반응

→ B급은 “경험 부족”, “요구사항 명확해야...” 등 방어

*8) “카카오테크 부트캠프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걸 어떻게 넘겼나요?”**

→ 스트레스·리스크 감수 패턴

*9) “감정·섭식·습관 같은 정성적 데이터를 다루는 도메인은 꽤 낯설 수 있는데,

이 도메인에 흥미를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 도메인 공감 & 내부 동기 확인

10) “지금 커리어 목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본인의 성장 방향성 확인

→ A급은 방향이 명확함

→ B급은 “잘 모르겠다” 계열

마지막으로

강민주는 “성장형·메타인지 높음·성실형”이라는 장점이 크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 리스크 부하·제주 합류·0→1 문제 해결·혼자 결정 같은

핵심 요구 조건과 맞는지는 커피챗에서만 드러난다.

위 질문들은

- 유도 없음
 - 압박 없음
 - 과장 없음
 - 딱 너가 확인하고 싶은 마인드셋에 맞춰 구성됨.
-

원하면

- “강민주가 A급일 때 나올 답변”

- “컷해야 할 답변 신호”
도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

강민주님

Summary

Company Background

- The startup was founded in March by Kim Eun-hyang, who has 8 years of development experience primarily as a data engineer at a major startup in Seoul. ▶
- The company aims to solve eating disorders and diet-related problems through technology. ▶
- Currently has 6,000+ users signed up with high retention rates compared to other healthcare apps. ▶
- The company is preparing for fundraising next year but operates with limited resources. ▶

Team Structure

- Co-founded by Kim Eun-hyang and Myunghak, a sports trainer specializing in healthcare. ▶
- Additional team members include a psychiatrist and a former colleague (team leader) from Kim's previous company. ▶ ▶
- Currently Kim is the only developer, which is why they're looking to expand the technical team. ▶ ▶

Value Proposition for Potential Employees

- Though unable to offer competitive compensation currently, the company provides an environment for rapid growth. ▶
- Opportunity to work directly with experienced seniors from top companies. ▶ ▶

- Chance to learn across multiple domains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 specific field as in larger companies. ▶
- Exposure to full startup experience including architecture, data, and business model development. ▶

Location and Work Arrangements

- The company is based in Jeju Island, chosen for its conducive environment for focused work. ▶ ▶
- Remote work is possible during a "repair period," but core team members are encouraged to relocate to Jeju. ▶
- Plans to potentially move to Seoul in 2-3 years if necessary. ▶

Product and Development Approach

- Initially created using Flutter, though Kim had no prior experience with it (built through "VIVE coding"). ▶
- Current 12-week program focuses on eliminating binge eating and building healthy habits with one-on-one coaching. ▶
- Development philosophy emphasizes rapid experimentation and data collection over perfection. ▶ ▶
- Immediate tasks for new developers would include fixing bugs and planning to change the app's UI structure. ▶ ▶

Business Model and Future Vision

- Current program pricing has increased from 120,000 won to 200,000 won, with plans to raise it to over 3,000,000 won next year. ▶ ▶
- Planning to release additional coaching programs. ▶
- Long-term vision is to build a comprehensive dataset on eating habits that could be valuable in the era of AI personalization. ▶ ▶
- Goal is to become the leader in diet/eating habits data in the AI era. ▶

Action Items

- Interested candidate to contact the company for more detailed technical discussions. ▶
- Further conversation to get to know the potential employee (Minju) better. ▶

Notes

Transcript

Hello. Hello. Can you hear us well? Yes, we can hear you well.

The reason why we decided to do this is because I think the situation of our team is... It's a little different from a normal company, so I wanted to share it with those who applied for it. We need to talk about what we think is right or wrong in advance, so that the process can be easier for each other.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way to not waste time, so I contacted them to have a coffee chat. So, first of all, we checked if you gave us your resume. We will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Oh, and one more person will come in. He has some work to do.

I will upload it later. I am Kim Eun-hyang. We started this in March this year. I have been on a diet for a long time, and I wanted to solve the problem of eating disorders with technology. I have been working as a developer for 8 years at a big startup in Seoul. My main area is data engineering. I worked as a data engineer for 5 years and started a business.

I wanted to use technology to solve this problem, so I created an app service. My area of expertise is data, so I made it with something like Flutter, but I didn't know how to use it at all. I didn't know how to use it at all, so I made it all with VIVE coding.

I made it all with VIVE, I made it in May and released it. Fortunately, more than 6,000 people have signed up. The retention rate is very high compared to other health care apps. There is a possibility. I'm thinking about doing it right.

Here is the business card. Hello. Hello.

Myunghak and I are co-founders. We started in March. Myunghak is a sports trainer. He specializes in sports health care. He is a professional, and he is also in charge of other coaches and contents. There are two people in charge, one is a

psychiatrist, and the other is the team leader who worked with me when I worked as a data engineer.

The team leader is also a person who met me at the company and worked with me while watching me draw Jacob in the so-called tech unicorn company. As you can see, there are only a few people in the team. I was the only one who wa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As our company solves the issue of eating habits, we can clearly see the direction we want to go in. So, I wanted to create a company where our company can monopolize the data on eating habits in the era of AI. I am not a developer, but I am spending a lot of time on this, s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have someone in charge of this.

At this stage, we are preparing for next year's fundraising. There are not many celebrities left in the company, and it is a structure in which the company can continue to survive by bringing in a lot of good people only when a small amount of money comes in, so even if you come in, it's a scenario where you can suddenly say that tomorrow is ruined, so let's disband.

And the company is even in Jeju Island, so I'm working like a crazy person in Jeju Island. If there is anyone who is willing to do this, if we are lucky enough to meet such a person, I thought it would be good to do it together. I know that this story is very high in demand. Through this light coffee chat, I've done a lot of documents, interviews, and coding tests.

If we don't agree on what we want to do, it's a waste of time. So I suggested that we do a coffee chat first. Was that a sound?

I have a question. Yes, yes, yes. You said that you are Korean. Yes, that's right. I'm curious about how you can participate in such a situation as you can't focus on growth. First of all, what we can give you is...

It's hard to get good treatment and good money right now. But what we can give you is an environment where you have no choice but to grow. What I felt while working in the development industry for a long time was that it was a time when it was difficult for developers to survive, so I started a company. In such a situation, how can this company survive? I think it would be best to experience it right next to you.

Fortunately, I have been working in a good environment, and I have many good colleagues around me. So I am preparing a lot to recruit such people. There are many so-called NECARA juniors around me, and our company is also preparing to recruit them. I worked at a foreign company for a long time. I was able to work right next to those people. I was able to work at a company like that.

I think it is the best value that we can give to people who are growing up with the ability of a senior like me. For example, if you enter a large company, you can learn only in your field. I think it is the best value that we can give to people who are growing up with the ability of a senior like me.

I think it is the best value that we can give to people who are growing up with the ability of a senior like me. Once the company grows, even if it goes bankrupt tomorrow, we are looking for people who can trust and support us when the company grows. In that sense,

If we are lucky and we work hard together, we can take it with us, right? We can see and learn from the seniors who are growing up so fast. Of course, we can't rely on seniors, but we can learn from them. Yes, I think so. Thank you.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any questions you have. Let's move on to the next step. You can send me a text or something like that. I have another question. As you can see from the voice memo, I don't have any experience with Flutter. But I was told that they were going to develop a Flutter app. So when they offered me to work on it, they asked me what kind of image I wanted to use.

I'm curious about the tasks and tasks that must be done first when I join this team. First of all, I...

I think we are in an era where our skill sets are becoming less and less meaningful. In that sense, I think it is much more important to look at the architecture of the data and develop it while looking at the overall business model. In that sense, I didn't look at Minju's skill set like a flutter.

First of all...

I went to a foreign company and worked almost remotely, so I came down to Jeju Island in an environment where I didn't have to be in Seoul. As I started my own

business, I was able to meet a lot of people. I was able to meet a lot of people. I was able to meet a lot of people.

I was able to meet a lot of people. Of course, it started in Jeju Island. We are also dealing with the issue of diet, so we need a lot of coaches. There are a lot of diet-related trainers and yoga teachers in Jeju Island.

We are thinking about moving to Seoul in 2-3 years if necessary. But right now, the environment where we can focus on our work is the most important. We have already established relationships with investors here. I don't have a reason to go up, but if I say I have to go up, I go up the next day, so I'm in Jeju Island for that reason.

If you work together, you can work remotely during the repair period. If you want to join the core team, you can come down together. Once you join, there are a lot of things you need to do. First of all, you need to start with a small bug in the app service.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difficult. What we want to do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is to change the UI structure of the app. We prefer fast development and fast experiments. Even if the app has an error and the tag goes, I think we just need to experiment with what we want to experiment with and get the data.

It's not like we have 1 million users. So we need to do experiments quickly, distribute them quickly, get data quickly, and make decisions based on the data.

While you are talking, is there anything else you are curious about? I took a look at the app for a moment.

We have a 12-week program, and now we are focusing on eliminating binge eating and making healthy habits. The coach is one-on-one, so it is a structure that cares for them to follow their program well. So, at first, we started with 120,000 won and now we have raised it to about 200,000 won.

We are planning to raise the price to more than 3,000,000 won next year. We are still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demand, so we are discussing how much we should raise the price. And we are planning to release another coaching program next year. So we are...

Our goal is to collect independent data. For the next 2-3 years, Thank you. Thanks. When it became natural for all humans to control their weight with AI individualization and GLP-1, we used our data. It also has R&B elements.

We have set the time limit to 30 minute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I'm interested in this company. I'd like to talk more about it. If you have anything to say, please let me know.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get to know Minju more, talk to her more technically, and spend more time like that.

I see. Thank you so much for participating to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서현덕님

Summary

Company Background

- Sosik Lab is an early-stage startup (0-1 phase) founded in March this year by CEO Eunhyang Kim and co-founder Myunghak Han. ▶ ▶
- The company is focused on solving social problems with technology. ▶
- Currently generating revenue through coaching services (not app-based). ▶
- Preparing to launch a full app next year and seeking seed investment. ▶
- Based in Jeju Island. ▶

Current Needs

- Looking for a developer to take charge of their existing app, which was built with Flutter but has numerous bugs. ▶ ▶
- Immediate priorities include:
 - Bug fixing in the current app. ▶
 - UI improvements. ▶
 - Performance optimization. ▶
- Current focus is more on UI and front-end development. ▶

Team & Work Culture

- Small organization with a focus on fast growth. ▶
- Current team includes:
 - CEO and co-founder (who handle coaching at a gym)
 - Additional coach
 - Content manager
 - Team leader with data experience ▶
- Remote work is possible, especially during the training period. ▶
- Looking for developers who want to grow with the company from early stages.
 - ▶
- Compensation will be tied to company growth. ▶
- They value generalists over specialists in their current stage. ▶ ▶ ▶

Company Vision

- Data is critical to the company's future direction. ▶
- Long-term plans include improving data structure and overall architecture. ▶
- They believe skillset and specific programming languages are becoming less important with the rise of AI tools. ▶

Action Items

- Interested candidates should contact the company through Wanted mail. ▶
- Candidates interested in immediate interviews should send an email today. ▶
- Candidates can ask additional questions about the company and its growth plans. ▶

Notes

Transcript

I got it right at 5 o'clock.

Can you hear me? Yes, we can hear you well. We can't hear your voice well.

Can you hear me well?

Can you speak a little louder? Yes, I think it would be better if you speak a little louder. I did turn up the volume to the maximum.

I will speak as loud as I can. Thank you.

My name is Eunhyang Kim and I am the CEO of Sosik Lab. This is Myunghak Han, a co-founder of Sosik Lab.

It may be a little different from the general situation, and I wanted to talk about this first and see if the applicants wanted to proceed with this, so I contacted the coffee chat. I will briefly explain about that part. We are in the early stages of 0 to 1, and we started our business in March this year.

As a data engineer, I ha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 wanted to solve social problems with technology, so I started. The sales are now coming out little by little because there is a service called coaching, not an app. Next year, we are preparing to pay for the entire app and invest in seeds and tips.

Also, we are in Jeju Island, and we need to implement it as soon as possible. I was making the app with a vibrant coding, and I need someone to take charge of the app. That's why I'm making this announcement. We are a small organization, but I have been working at a startup for a long time.

There are people who have a lot of experience, so as developers, rather than a typical career of a developer, I think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grow from 0 to 1 to 100 and experience it together. I am looking for a person who will be rewarded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company.

How did you feel when you heard the situation so far? I was in a state of shock from the beginning of the broadcast. I was so shocked that I couldn't speak. I'm looking forward to how it will turn out in the future. That's right. Right now, Hee is working hard on that part.

It takes a lot of time to set up the direction, vision, and strategy of the future, and to catch the bugs in the app. So I wanted someone who could take the lead on this. Our company's situation is very urgent, and since we are in Jeju Island, During the training period, I worked remotely, and when I thought the company would grow well and I wanted to contribute properly, I thought of joining. In that regard, I wrote Jeju on WANTED and sent it. After that, when I thought it was

different from the career direction I was thinking of, we looked at each other's documents, interviews, technical interviews, coding tests, etc.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ask. I will also ask if I have any questions. Myeonghak and I are in charge of coaching at the gym. There is one more coach and one person in charge of the content. There is also a team leader who has been working with me in the data team for a long time.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add?

I'm going to proceed as a very small member. Rather than moving on to such a large organization, a small organization is a bit... I'm thinking of an organization or team culture that puts the company's growth as the top priority and grows quickly. So there are people I'm contacting right now. Someone who analyzes data rather than development.

Actually, it's not a typical back-end or data-oriented career. The problems that we can leave to juniors who have to solve now... It doesn't matter if you're a junior or a senior these days. I have been working as a data engineer for a long time. I made the app with Flutter, but I made it with VIVE coding. So there are a lot of bugs in that part. It is very inefficient for me to solve them one by one with VIVE coding.

Data is very important for our company's vision and direction. We need to design the data, build the pipeline, and proceed with the work. In that regard, starting with the initial bug of the app, we need to change the UI of the app, and we need to make it faster.

As we grow, 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data structure and improve the overall architecture. But what we need right now is close to UI and front end. The reason why I suggested this to Hyun-duk is because I think that the skillset and language are becoming less and less important. What do you think, Hyun-duk?

There are so many languages these days, and the number of languages is also decreasing. Moreover, there are a lot of AI tools these days. For example, OTPT or Gemini. It's not a big deal, so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big deal. I think it's more like giving instructions based on the business model and the situation.

I have been in the development career for 8 years. 3 years... The first year was full-stack, the second year was back-end, and the third year was data. But back

then, our careers were very clear. It's a career where I become the data. It's a career where I manage. But now, that part doesn't seem important at all.

The developers are in the front row. They are in charge of the front row. I'd like to know what they think about that. I was curious about it too.

Have you learned anything new recently?

What did you learn? I learned about VIVE coding and AI.

In 2013, I participated in Samsung's anniversary bootcamp for a year. As I participated in the bootcamp, I learned a lot through various team projects. It depends on how you use the tools, the output changes a lot. So how do you make the prompt? From the stage of proceeding with the project to the stage of designing and developing, everything was done.

I realized that the planning process is very important. If the planning process is a little messed up, there will be more ratings later, and it will be more time-consuming to change it. Can I ask you about your career or what you will be like in 10 years?

I think it's getting more and more common these days. Rather than doing only backhand, I think we should go to a variety of courses. I want to build a lot of things from various experiences, not only playing, but also front and uptake.

I heard that there are a lot of difficult things to get a D.A. or D.E. certificate at AWS. I've heard a lot from the developers around me. What do you think about working like this? I don't think it matters much.

I think that's what I can taste in the seed stage. When I started my career as a developer, I started by making my own products. It was fun, but I think it's also fun to make a product now, and I think I can grow the most. I'm not a specialist, I'm a generalist.

I think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ee all the structures and architectures from a higher perspective. I wonder what the developers and those who have started their careers will think about this. So I asked. We have set aside about 20 minutes for the next meeting. If you are interested in our company and want to proceed a little more, you can contact me through my contact. You can tell me more about what you are curious about. Thank you.

If you let us know through wanted mail, we'll talk about it. The person we're looking for is clear. We need someone who says, I'm going to try to revive this company with a joint venture. Accordingly, we will support you all. Fortunately? There are a lot of good people around me. I'm preparing to bring them. Let's...

I think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to work with people who ar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exam. I'd appreciate it if you could contact me. If you have time today, if you want to receive an interview, please send me an email. It doesn't matter what it is. Just do it lightly.

You can ask me questions like, what are you doing? Among the things I talked about today... I'm speaking in a dialect even though I'm speaking in a dialect. Among the things I talked about today, there are a lot of things I didn't talk about. You can ask me how I'm going to grow the company.

I think that's it. Thank you for your time. Goodbye. Prove.

핵심: “회사 상황 → 지원자 감정 → 판단” 이 3단계로 압축.

✓ 0) 오프닝 (30초-1분)**

→ 친근, 가벼운 인사

오늘은 기술 얘기보다, 저희 팀 상황을 먼저 솔직하게 공유드리고
거기에 대해 지원자님 생각을 듣고 서로 핏만 가볍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면접 분위기 제거 + 목적 분명화가 동시에 된다.

✓ 1) 회사 상황을 1~2분만에 “압축” 전달

지원자가 이해하기 쉽게, 너무 길지 않게.

저희는 0→1 완전 초기 단계입니다.
매출은 코칭 기반으로 조금씩 나오지만,
내년 유료화/시드/типы스 전까지는 언제든 망할 수 있습니다.

제주 기반이고,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빠르게 실험하는 팀입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보상은 솔직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장 환경은 확실합니다.
AI 시대에 개발자 직무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0→1을 옆에서 직접 경험하는 건 장기적으로 어떤 회사보다 강한 자산이 됩니다.

핵심만 정확히 던지고 멈춘다.

✓ 2) 바로 핵심 질문 던지기 (이 자리가 전부임)

지원자가 많이 말하게 하면서, 본심을 정확히 드러내는 질문.

 이 질문 한 방이 이 커피챗의 핵심이다:

지금 상황을 들으셨을 때, 솔직히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 질문은:

- 유도 불가능
- 정답 없음
- 꾸미기 어려움
- 지원자가 말의 주도권을 가짐
- 지원자가 2~4분 자연스럽게 말함
- A/B급의 진짜 마음이 가장 정확히 드러남

즉, 지원자 말 비중 확 늘어나면서도 본심이 나온다.

✓ 3) 답변을 듣고 5초 안에 다음 선택

여기서 네가 가장 원했던 “시간 낭비 방지”가 실현된다.

A) 좋은 반응

- “흥미롭다”

- “이런 환경 좋아한다”
- “성장 기회로 보인다”
- “해보고 싶다”
- “불확실성도 괜찮다”

→ 다음 단계로 진행 (기술 대화)

B) 미지근·회피 반응

- “음... 생각해봐야”
- “불확실한 부분이 좀...”
- “지금 단계에서... 고민된다”
- “보상은 어떻게...”
- “제주라서...”

→ 즉시 커피챗 종료

지원자도 억지로 진행되지 않아 서로 시간 절약.

✓ 4) “OK”라고 한 지원자에게만 추가 질문 (지원자 말 중심)

지원자 말 60–70% 나오도록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된다:

👉 “지금 커리어에서 가장 몰입했던 경험은 뭐였나요?”

→ 동기/성향/에너지 방향 파악

👉 “최근 가장 크게 배웠다고 느낀 건 어떤 건가요?”

→ 성장 패턴

👉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나요?”

→ 스타트업 적합성

👉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가치관

이 질문들은 대표가 말하지 않고 지원자가 주도권을 갖는 구조다.

✓ 5) 마무리 질문 (지원자가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기술 대화)로 이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끼시나요?

A급은 여기서 본심을 드러낸다.

임거정님

Summary

Company Introduction

- @김은향 is the CEO of Sosik Research Institute, joined by co-founder Myung-Hak Kim for this interview ▶
- The company is in early stages ("0 to 1") and looking for a developer to join their core team ▶ ▶
- The CEO has a background as a data engineer and created the company's app using Flutter ▶ ▶
- They want someone who can help take ownership of app development while the CEO focuses on data pipeline and AI development ▶ ▶

Business Model and Product

- Sosik focuses on the eating disorders market, which they describe as a "niche market" ▶ ▶
- The company has two main products: an app and coaching services ▶
- Over 90% of revenue currently comes from coaching ▶
- The app currently focuses on timer functionality ▶
- They plan to make the app fully paid in the future to "reduce noise" ▶
- They describe their product as more of a "painkiller" than a "vitamin" in the startup world, meaning it solves a specific problem rather than being a daily use product ▶

Current Metrics

- The app launched in May and has approximately 6,300 users ▶
- Daily active users (DAU) range from 3,000-4,000 ▶
- The app retention rate is 20%, which they note is 4 times higher than other healthcare apps ▶ ▶
- The coaching program is in its 4th season with over 60 members ▶
- The company has generated "tens of millions" in sales (presumably KRW) ▶

Future Vision

- The company aims to collect data on human behavior related to eating ▶
- Their goal is to monopolize eating behavior and emotional data ▶
- They plan to use this data for AI applications in the future ▶
- They intend to expand globally starting next year ▶
- Planning to enter the GLP-1 care area and obesity market ▶
- Focus on creating a product where users are satisfied and data can be collected independently ▶

Team Structure

- Very small team: CEO is currently the only developer ▶

- Myung-Hak handles operations and coaching ▶
- Recently hired two experts: a psychiatrist and a former data team leader ▶
- Plan to hire one more coach and a content person ▶
- Plan to keep the team small (6 or fewer people) until they find product-market fit ▶

Working Environment

- The company is based in Jeju Island ▶
- They are pre-investment but preparing to transfer funds ▶
- They emphasize the early-stage and high-risk nature of the company ▶ ▶
- Looking for team members who will "survive together" and see the future value ▶ ▶
- They want someone who can take initiative and handle the app development independently ▶

Candidate Preferences

- Seeking a developer who can be a generalist rather than a specialist ▶
- Looking for someone who can think about product development holistically ▶
- Values people who can quickly adapt and develop features based on user feedback ▶
- Interested in candidates who are passionate about creating good products ▶
- Not looking for senior developers at this point, but juniors with leadership potential ▶ ▶

Action Items

- Candidate to follow up with any additional questions via text or email if interested ▶

Notes

Transcript

This is a voice memo. It has been edited to include proper punctuation.

Annyeonghaseyo.

Hello. Hello. Can you hear us well? Yes, we can hear you well.

My name is Eun-Yang Kim and I am the CEO of Sosik Research Institute. I am here with Myung-Hak Kim, the co-founder of Sosik Research Institute.

Nice to meet you. We are in a different environment compared to other big companies. I will give you a brief explanation about that. I will briefly talk about the company's situation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I will briefly answer them. We will talk for 10 to 20 minutes. To give you a brief explanation,

We are in the early stages. We are starting from 0 to 1. As a data engineer, I felt that we needed a junior developer. I wanted to solve social issues with technology, so I created an app. In the process, I made an app by coding flutters with VIVE. The direction I want to go in the future is to create a data pipeline and create an AI.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can't focus on those things, so we made a proposal to find someone who can join our core team while taking care of the app. So, how was it? What kind of movie? I just saw the announcement and downloaded the app. I didn't know it was made by a person who used to be a data engineer. It's an app developer.

I thought there was a separate development team. Yes, that's right. I don't have a development team yet. I have been working as a developer for a long time.

However, my main area of expertise is in the field of data, so it's time for me to work on things like VIVE. I am not hiring a developer because it's the beginning of a full-fledged development, but because I was curious about people's reactions in this market, so I released an app with VIVE coding. Fortunately, there is a response now, so I will make it a little more sophisticated in that part.

We need people who have worked with us before, so we made a voice memo. I think it's clear who we want to work with. We don't know when we will be back, but we want to take the company's growth as our top priority. We want to take a big reward for the future together.

I am currently looking for a core member team. I am also working as a developer. I thought it would be fun to create an app from the beginning and create it with a lot of user experience. I wanted to know more about the company. This is not about joining as a co-founder because of this coffee chat.

We will be sharing what we can and what the people who applied for us want. We will be sharing what we can and what the people who applied for us want. I wanted to talk about this. Most of the companies in Wanted... I've applied to a lot of companies in Wanted.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that are at least above Series A, right? In that situation, I think the value and compensation that we can give is relatively small as of now. I was curious about how you think about your career. I don't want to be a specialist. These days, rather than being a specialist,

As AI develops and develops itself, it can grow in a variety of ways. As a T-shaped human being. I want to be a developer who makes good products that go well with the overall concept. If you need it, you can do it. You don't have to divide the front and back. If it's an app, you don't have to divide it like this. If you need it, you can do it.

It is necessary to develop with a plotter. Since we have been developing with a plotter, of course, you have to take care of the development yourself.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 I hope you can think about how to make the product well and how to make it.

I think it will be a good experience for me, and I think it will be a good experience for me to communicate with users and give feedback quickly. I want to work in that kind of structure.

Yes, there are companies that can do that. You said you are an intern at your current company. Are you still working there? This is an interview for the contract to be signed at the end of December. But here, for the first time... Originally, only the front-end...

Also, I communicated a lot with the users, so it felt like I was a product maker. I thought it was fun, so I decided to choose a career as a developer. I think that's going to b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Why did you hear that? Did you make an extension program to put on Discord?

I made a 0.1 version, received feedback, and then received a 0.2 version and delivered it. I'm just curious. What kind of product did you make? Did you just make a search engine? I created a search engine to search for characters. The search function in the app? Yes, I am in charge of the search function in the app.

I was busy looking at it with my blurry eyes. But when I saw Go Jung-rim's resume, I thought, Oh, what is this? You did this much? She's an intern. That's what I thought. While I was working as an intern, it was fun and I was able to focus on my work.

I kept thinking about what I could do more, and I kept waiting for the feedback from the users. I've been trying to do a lot of things so that I don't let my expectations go down. I think that's what happened because I've been working hard. I'm still developing.

Don't you think it's too much? What? Don't you think it's too much? You should keep doing the search function. I see.

I think it will fit well with our direction. We don't have a Discord community, but we have a YouTube community. We also have a service to coach users. It's a structure that you have to keep meeting. Because the sales come from there. So, in that regard, we developed it quickly and received feedback quickly.

We are looking at applying it to production as soon as possible. You mentioned T-shaped, generalist, and specialist.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I totally agree with you. I hope there will be more generalists in the future. I think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re you interested in starting your own business?

I don't know much about the project right now. The development itself is still in progress. If I have a chance later, I want to make it well, so I'm still in the development phase, and I'm studying development.

Lately, LLM has developed into a company that makes products and learns from them. I think it's a good start to start a business. I thought it was very affectionate of the product itself. Because usually, it ends with a bell log. I'm not good at it. So when I saw that part, I thought, Do you have any thoughts on starting a business?

Q. If you were to immerse yourself in the drama, how would you do it?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digs deep and does what needs to be done? Or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takes your time until it's done?

How much do you focus on when you work or study? Right. I'm like a cycle of work, study, and immersion.

I just do it all day.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start working, I just do it. I worked on it and played it on the weekend. It's really hard to do it because it's not fun. If you ask me what my hobby is these days,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say other than development.

I think it's a situation where I'm immersed in something. That's right. While reading the blog...

Thank you.

Do you mean technically? Yes, both technically and developmentally. It's the same when I make a voice memo.

I wanted to be a global engineer. There are many famous off-source companies, but I wanted to be a global conference engineer. If I say it like this, it's the same as what I wrote in the blog. I want to be a developer who makes good products, but in the process, I think a lot about how to make it.

I think it's a developer who has accumulated a lot of experience. So it's not just a CTO.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How long did it take you to develop the song? It took me about 2-3 years to develop the song.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I got lost.

I had to go somewhere for a while. It's been about 3 years. I went to the U.S. for a while. It's a shame, but I will continue to work on it and study it.

I think you have a very good strategy. I think you have a very good strategy. I think you have a very good strategy.

The technical depth is important, but in the end, it's the result. I think it's more important that I contributed to the ability to prove the quality of a good product. I've been in the development scene for a long time. I've met a lot of genius developers.

If you ask me what is more important in this AI era, I would say speed. I think product quality is more important. As I said before, the CPU itself is more important than the CPU. I think it will be a song with a strong CTO vibe. You know we are in Jeju Island, right? How did you contact us after seeing this?

I like to challenge myself. It doesn't matter where I am, but I like Jeju Island. I was a bit worried about that, but I don't really care about the location. I've lived in England, and I've lived in other provinces, and I've lived in Seoul.

I'm working like a local. So... I don't think it's a bad environment for me to just focus on work. If I were to compete fiercely and survive in this industry with good technology, I think Seoul is better. For example, if my goal is to become a NECARA-Cube developer, it would be better to build a career in Seoul.

Yes, that's what I think. It's been 23 minutes. Do you have any questions? I don't know how it's done. I don't know how it's done. The team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so it's very small. As I said before, I'm the only one developing the game. Myunghak is in charge of operating and coaching. We have an app and coaching. The sales are more than 90% from coaching.

This is a very early stage. So the queen will lead the coaching, and there will be one more coach. And there will be one person who will do the content. Recently, I hired two experts. One is a psychiatrist, and the other is a team leader who worked with me when I was working as a data engineer in a data team.

We are trying to get technical help from our team leader. The app is currently focused on the timer function. It's hard to focus on that. If we start with those things and our team grows little by little, we can take care of the whole product. I don't think I need a senior at this point.

A junior with leadership skills led the team well and I was like I will make a clean architecture. After that, I will design the data and try to make some data like this. Let's test A and B with this. I'm going to proceed like this. Also, I am in contact with analysts and other people who used to work at my previous company. So, if my company gets an investment next year,

I will try to bring them if possible. They are all very talented. I don't know if I should tell you this, but my ex-team leader also used to work at HyperConnect or Coupang. It's a team that creates products with crazy leadership, immersion, and pride in their work.

I'm working hard on it. Each and every one of you is precious. As I said before, we don't have any capital yet. It could be. Just in case. Yes, that's right. I'm a little worried about that.

We always work with the mindset that there is no tomorrow. In the process of wanting to become a tech lead, I think it's very risky to choose our company. If you really want to go from 0 to 1 to 100, I think it's a pretty good choice. Actually, we... It wouldn't be strange if we fail tomorrow, but we are doing our best. I think we have really good team members. Our parents and the people around us. When we were in the 4th grade, we were in the office like ghosts. Especially the investors.

I'm not sure if I'll be able to make it next year, but I'll try my best. I don't know if I'll be able to make it next year, but I'll try my best. When we bring them to our team, I think we should be transparent about everything. We might fail tomorrow, but would you like to give it a try? I think this is the basic standard.

So we are going to pick people who will survive together.

I'm trying to survive, but I can't pull it out. We are trying to build a team with the people who will see the value of the future, including myself and Eun-hyang, who a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y. That's why we invited you two.

Yes, that's right. Then, as an app, how do you make money? How do you make a long-term app? How do you see the future as an app developer? How do you plan to make a profit as an app developer? Let me tell you about our company's vision first. The market we are starting now is a market that deals with eating disorders.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It's a market where it's hard to hide. Right now, we are aiming for a niche market. As for the app... App and coaching are both a means. What I want to do is to collect data on human behavior related to eating. I am thinking of collecting action and emotion data and monopolizing related data. Monopolizing data is a huge asset.

I think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can be done with it. I think I can do a lot of things in 2-3 years or 5 years. In the future, when we have an ultra-individualized AI era, I think we will have an era where even cell phone apps can disappear. I am thinking of making it into a structure that can be used as a data pattern.

Fortunately, I have worked as a data engineer in that field.

I think there is a strength in that part. Nevertheless, short-term sales are also important. So, in that regard, the coaching program and From next year, we plan to make all the apps paid to reduce noise. When we make the app fully paid, we will make a UI and UX that can persuade customers, test it, and distribute it quickly.

My goal is to move smoothly to full-time. There aren't many customers. And our customers are very persistent. The retention rate is 4 times higher than other health care apps. So, when you look at those indicators, even if our customers find the app uncomfortable,

We are planning to diversify our coaching. We are going to touch on the GLP-1 care area. We are going to do a care program for the obesity market. Human's eating habits and trigger factors are all similar. Based on those factors, we plan to expand globally starting next year.

There are a lot of things I can explain in words. So I'm looking for a team member who can cover this together. We are looking for people who can take the initiative to solve this issue.

Thank you. Thank you. Next question. You said your dream is big. My dream is big, too. Thank you. Thank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through the app or the coaching center. How many people are using it? And how much do you expect the conversion rate to be? Is there any answer you can give?

We started coaching in March and started it in June. We didn't start it because we wanted t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have a coach, so I made it in a hurry and made an 8-episode program. That's how we're a team that proceeds a little faster. We have over 60 members in our 4th season of coaching. We have earne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sales. Since we launched the app in May, we have about 6,300 members. We have about 3,000 to 4,000 members in DAU. These days, the number has decreased a bit.

3% or 6% of health care apps are still available. We have 20% left. In that regard, Even if I don't care much about the app, I don't throw it away because I think it's possible. I'm trying to grow it well. Both the app and coaching are a way for me to collect data and a way to make money.

Our goal for next year is to create a structure where users are satisfied and we can collect data independently. I don't know if you've heard of it in the startup world, but there's a company that makes vitamins. There is a company that makes painkillers. We are closer to the painkillers. We have to use vitamins every day.

We have a lot of users, so we usually make money from advertising revenue. We are closer to the painkiller side, and we are also proving the retention rate. In that

regard, I expect that the percentage to be paid will be higher than other apps, but we will have to proceed while looking at the indicators.

If I were to join the company, I would like to continue developing the app. That's right. From the small bugs, UI and UX improvements, to the many experiments and tests we are going to conduct, it's all going to be great. I think you can do a lot of things freely and have fun. I think you can think of it as a guide.

Since there are no designers, the decision on UI and UX has been made by ourselves. Let's watch it together and discuss it together. AI is good at this. Even if there are a lot of sales, there is no need to expand the organization in a hurry, and I think that 100 people per day is enough to deal with 100 AIs, not 100 people. In the case of lotion, we started with a very small number.

Until we find a product market fit, we will be working in a group of 6 or less. It's very tricky, but I want to guarantee the best treatment if necessary. So we've been thinking a lot about it. Should we get an investment and put Junior in the public? Or should I post it first?

In order for us to do a good job, we need to upload the announcement at least 2-3 months in advance and meet a lot of people. That's what we decided to do, so we uploaded it first. We are also preparing to transfer funds.

We are a technology company, so we have a lot of things to develop, even if it's not an app.

If you don't have any more questions, we have a schedule after this. Today, I asked you if you would like to try running in a poor environment like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send me a text or e-mail. I will try to answer your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최선호님

Notes

임단님

Summary

지원자 배경 및 경력

- 현재 길병원과 연계된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앱 개발 담당 ▶
- 전자전기공학 전공, 올해부터 개발자로 커리어 시작 ▶▶
- 개발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바탕으로 커리어 선택 ▶▶
- 퇴근 후와 주말에도 개인 프로젝트에 시간을 투자하는 열정적인 성향 ▶
- 서비스 개발과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으며, 3년 내 리드급 개발자가 되고자 함 ▶▶▶

회사 소개 및 비즈니스 모델

- 다이어트 관련 앱 서비스와 코칭 서비스 두 가지 운영 중 ▶
- 현재는 코칭 서비스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 ▶
- 앱을 전면 유료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내년의 우선순위 ▶▶
- 데이터 수집과 AI 고도화가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 ▶
- 창업 7개월 차로,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 중 ▶
- AI 데이터 엔지니어와 정신과 전문의가 고문으로 참여 ▶▶

업무 환경 및 조건

- 초기에는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리모트 근무 가능 ▶▶
- 수습 기간 동안 월급 230만원 수준 ▶
- 핏이 맞고 투자 유치 시 코어팀으로 합류하며 스톡옵션과 연봉 상향 가능 ▶
- 제주도에 위치한 회사로, 향후 이사 필요 가능성 ▶▶
- 코파운더 수준의 몰입과 헌신을 기대 ▶▶

개발 접근 방식 논의

- 회사는 현재 빠른 개발과 사용자 반응 테스트 중심의 접근법 채택 ▶

- 바이브 코딩(AI 코딩 도구)을 활용한 개발 진행 중 ▶
- 지원자는 기술적 깊이와 함께 비즈니스 이해도를 갖춘 제너럴리스트 지향 ▶▶
- 단순 UI/UX 개발을 넘어 데이터 설계와 AI 학습까지 함께할 것으로 기대 ▶

업무 스타일 및 가치관

- 지원자는 문제 정리, 스케치, 집중 작업, 필요시 산책 등의 업무 루틴 보유 ▶▶▶
- INFJ 성격 유형으로, 시스템 구축과 동료 관계 형성에 관심 ▶▶
- 회사 시스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
- 팀 내 의견 충돌 시 상호 존중과 합의를 중요시함 ▶▶▶

회사 가치와 기대

- 창업자들은 재미와 사람들을 돋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업 ▶▶
- 0에서 100까지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핵심 가치로 생각 ▶
- 높은 수준의 몰입과 헌신을 기대 (주 7일, 자는 시간 외 일) ▶
-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

진행 과정 및 다음 단계

- 다음 주 내로 추가 면접 진행 예정 ▶
- 기술 면접과 간단한 코딩 테스트 포함 ▶
- 가능하면 기술 고문도 참여해 함께 이야기할 예정 ▶
- 문자로 일정 조율 ▶▶

액션 아이템

- 회사 측에서 고문의 스케줄 확인 후 다음 면접 일정 제안 ▶
- 지원자는 추가 면접 일정 확인 및 준비 ▶
- 양측 모두 추가 면접 후 최종 합류 여부 결정 ▶

Notes

Transcript

사실 이 이력서는 초라하지만 오늘 바로 작성한거에요 오전을 확인하고 아무래도 자사 제품이 아니었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소스를 투자하기도 어렵고 원하는 설계도... 조정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끌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간현대에 계시는 건가요? 네 길병원이랑 같이 해서 연구실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저는 이제 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개발을 하게 됐는지 언제 시작하신거에요? 원래 학교 시절부터 조금씩은 해왔는데

어... 학부가 뭔데세요? 네, 전자전기공학입니다. 전자전기공학에서 약간 미뤄둔 숙제처럼 뭔가 하고 싶은데 계속 일단은 코드를 보고있었는데 어쩌다보니까 방송국에 가게되어서 개발자의 취업을 미뤄둔 상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고 커리어의 시작은 올해부터입니다.

저는 개발을 왜 해야겠다고.. 왜냐면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니까요.. 안정적으로.. 약간 이거는 저의 쪽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따지면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어찌됐든 저희가 평생 일을 해야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그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뭔가 늘어나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로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는 분야라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어... 일은... 개발자는 좀 일보다는 어떤...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다가오신 건가요? 네, 재밌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는 재밌어서 창업한 거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굉장히 약간 개발 쪽으로 창업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초기 팀이라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셨다 지고 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 왔었는데 일단은 근데 초기에 네모 석류하면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는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당장은 뭐 페이나 이런게 크지가 않으니까 회사도 리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되게 오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0부터 1부터 100가지를 다 경험 중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자분들이나 다른 주변의 개발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지원해주시는 분이나 저희 팀에 들어오고 싶은 분에게도 충분히 가치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닷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그 부분이 메리트가 되려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계속 다양한 걸 해봐야 되니까. 하나를 서비스로 운영을 해보고 그러려면 그게 필수 부각이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저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근데 네, 저는... 네,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그 개발자를 뽑게 되면서 반대의 입장으로 가 보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가치관도 너무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에 저도 엄청 공감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여기가 약간 제가 말한 가치가 진짜 꼰대처럼 무슨 창업을 한 돈을 줘야지 이런 걸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내가 0부터 1까지 책임지고 만들어보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핏이 맞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코피 체스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단님이 좀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시면 계속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어떻게 가능하세요? 저희는 한.. 저는 완전 플레이입니다 이제 서로 마음이 맞으시면은 이제 단님도 일요일이니까 하루 이틀정도 생각해보시고 같이 가겠다 다음 단계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도 담임이랑 오늘 얘기한 거 가지고 담임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 일단 되게 평가가 되게 긍정적이더라구요

네네네 혹시 다음 단계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두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가 앱 서비스고 두번째가 코칭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앱으로는 유료화를 막 냈어요 한 9월쯤에? 9월 말쯤에 막 냈는데

너무 이제 제가 개발자이자 대표이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이 계속 밀려서 구독에 대한 고도화를 못했고 그래서 앱은 거의 매출이 아직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코칭 서비스로 90% 이상의 매출이 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코칭 서비스는 고비용인데 다행히도 계속 수요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매출을 계속 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앱 서비스를 이제 고도화 하려는 이유도 얘기가 조금 길어지면 좋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더 궁금하시면 더 물어보시면 되고

아, 네. 데이터로 좋은 가치를 주고 싶다. 왜냐면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을 통해서 앱과 코칭은 수단일 뿐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 앱과 코칭을 통해서 디아이어트 시장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행동이나 감정, 이런 데이터를 제가 모아서 고도화된 AI를 만드는 게, AI, 고도화된 AI를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위해서 앱이 많이 이제 발전이 돼야겠죠? 그런게 있어서 다음 단계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앱을 전면 유료화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앱이 리텐션 수치가 좋아가지고 다 헬스케어 앱 대비해서 한 3, 4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서 빠르게 데이터를 보면서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유료화를 해보고 이런 실험들 그러니까 내가 어 진안하고 클린 아키텍처 이런걸 만드는게 아니라 빠르게 뭔가 ui를 개선하고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런 테스트들을 많이 가져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할 저희의 첫번째 우선순위구

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어 되게 어 어 네 어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만약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어찌 됐든

꽤나 모험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맞습니다 사실 이곳을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금액적인 것에서는 전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지만 그래도 생기는 가능해야 할 수준의 그 결과가 혹시 나올까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직원 팀 한 분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수습 기간을 3개월을 두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안 맞으면. 저희 총 2팀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리모트로 일을 하면서 서로 이걸 같이 해볼지 좀 안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걸 해보면서 너무 잘 맞아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코어팀으로 바로 합류하시고, 저희도 그 안에 가능하면 투자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더 안정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한 3개월간은 내려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신 곳에서 리모트를 하면 됩니다

규벽 측면은 초기에는 수습기간 동안에는 서로 핏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간에는 한 230? 네 그쪽에 나와있는 저희가 아마 적어놨을거에요 원티드에 네

연봉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네 이후에 저희가 코어팀으로서 배우는 만큼에 핏도 받고 투자도 받으면 이제 저희 코어팀이 스텁도 있고 연봉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확인했습니다 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괜찮았어요 아 나 사실 로망 아닌 로망이기도 했고 오 진짜요? 무슨 로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저는 사실 막 취미가 많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요 어 그냥 음 제주도 사기 아 제주도 사기와 뭔가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고 강아지와 산책 저희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주를 왔거든요

저희가 서귀포에서 한 2, 3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버트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외국 게임 회사에 다녔거든요. 근데... 어쩌다 창업을 하게 되니까 제주시로 올라올 수 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제주시가 도시입니다.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려갈 수 있다면 바로 내려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요? 지금 가천대 쪽에 계시겠구나. 지금은 인천에 있습니다. 길병원 쪽이라서 업무 장소가 길병원 내부에 있어서 지금은 인천에 서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팀원분들한테, 지원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기가 조금 저도 꺼끄럽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역량이 좀 과다해요. 그래서 막... 스킬셋이나 이런게 과다한게 아니라 기술 역량이 과다한건 전혀 아니구요 저희랑 같이 거의 그냥 코파운더처럼 진짜 몰입해서 진짜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게 내 당분간은 그래도 내 우선순위 1위라고 같이 가실 분을 구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원티드에는 기대를 안했거든요 올려놓긴 했는데 지인들을 구해서 찾고 있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개발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자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을 통

해서 창업하실 분 중에 돈 받으면서 안전하게 창업할 사람 없나? 이러면서 그런 걸 찾고 있긴 해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티드로 지원하신 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님한테도 투명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제가

주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은양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과 그 다음에 저희가 고문분도 한 분 계셔요 AI 데이터 아, 네. 많은 부분에서 좀...

이점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단님께서. 아,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 저희 회사 전 회사 팀장님에 끌려 들었어요, 제가. 전 회사 팀장님, 데이터 팀장님한테 가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 전 팀장님의 이제 소위 말하는 유니콘에만 계셨던 분이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유니콘에 그냥 유니콘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한창 성장할 때 있으셨던 분이라서 이제 회사가 러닝커브를 달릴 때 회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성장곡선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 가지고

연락을 드린거고, 다행히 같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만약에 이제 저희 팀에 합류하신다면 저랑 이제 저희 고무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 먼저 말씀해주신 거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제주도 내려간다 하면 그걸 감안하고 내려가는 거였어요. 아...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취미가 있는데 아니라서요 취미가 개발인가요? 지금도 이제 막 퇴근하고 파이터 프로젝트 하고 출근하고 거의 주말 없이 퇴근 후에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사인작도 하신다고 하셔서 궁금한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서비스 자체라는 갈망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자체 서비스라고 보기엔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을 쏟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뭔가 성장에 대한 갈증과 정리가 잘 안되어있는데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간은 그런 생활을 유지해서 적어도 리드급에는 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가지고요. 단님이 생각하는 리드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사실 플러터 혹은 모바일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업무를 분할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드그룹이란? 문제를 봤을 때 이를 나눠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전체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그 하나의 서비스의 담당자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리어를 어쨌든 개발자로 계속 잡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개발자로 잡고 있는데 네 네네 네 현재는 개발처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궁금한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AI 얘기를 빠질 수 없죠? AI 공연장에 계시다고 하셨고 네 사실 개발자가 사라진다는 말이 많잖아요 어 괜찮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살아남는 개발자는

진짜 잘하는 개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테크를 가지고 싶으신 건가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일단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발자에서 퍼신된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막 개발자 취업상 어렵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니까 일단 목표로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늘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개발하실 때 바이브 코딩도 하시나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모르는 부분은 안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전에 했던 IT 회사에서는 적극 권장을 했었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경체도 아니고 퇴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바이브 코디한지 시켜보기 전에 그걸 내가 한 번쯤은 사용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저는 지금 앱을 전 창업자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룰코코딩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아니고 플로터도 잘 모르고 저의 주 영역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는 망할 수도 있는 앱에 플러터까지 공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바이브코딩으로 거의 해서 만약에 오시면 이게 뭐지? 싶으실수도 있고 네 룰러터 쪽으로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커리어를 잘 쌓고 싶다 라고 하시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프런트 쪽을 좀 더

깊이 파보신 멘토가 옆에 붙어있는 게 사실은 가장 성장이 빠르거든요 음... 네 네 그... 저도 데 이트... 개발자 커리어를 다른 쪽에 잠시 갔다가 다시 밟았는데 네 그때 제가 개발자로서 제일 잘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때 옆에 멘토분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저한테 10년차 넘는 시니어분이랑 둘이서 개발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기술을 제가 다 물려받아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진짜 좋은 성장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테크 트리로 갈 때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프론트로 나는 진짜 가겠어라고 한다면은 그 커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됐든 저 이거는 저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이제 클라우드 맥스 쓰고 있어가지고요 어찌됐든 개발자보단 하마의 서비스의 담당자 느낌이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플러터만 한다 이렇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쌓고 싶은 거죠 뭔가 뾰족한 한 사람보다는 비즈니스를 좀 이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뭐, 배우는 거라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으니까. 근데 저도 동감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제너럴리스트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T자형 인재보다는 데이터를 코드를 내가 꼭 짜지 않아도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걸 기반으로 내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게 결국에는 개발자의 루트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그런 생각도 저도 요새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담님이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UI, UX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와 ai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파이

프라인을 짜서 그 구조를 어떻게 다시 앱에 반영을 하고 다시 뭐 저희 코칭 같은 서비스 정성스 데이터를 서비스를 어떻게 데이터 구조화해서 쌓아서 그걸 AI한테 학습을 시키는지 그리고 모델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 또

두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스타트업 시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코어팀이 해야하는 역량은 그렇습니다 각자의 영역들에서 이 하나의 같은 관점 그리고 설계 지도를 가지고 각자의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해나가면서 공유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단 님은 이렇게 개발을 하시거나 일을 하실 때 좀 어떤 편이세요? 되게 막 몰입을 하는지 아니면 엉덩이가 막 무거워가지고 네 이미 난 너무 성실해서 그런 분도 있고

이거는 약간 몇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오, 네.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앉아있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집중이 안 될 때 돌리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루틴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문제 정리하고 거기서 써내려가면서 어떻게 할지 한 번 약간 종이 A4같은거에다가 뭐 이런식으로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약간 문제 정리하고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풀어보고 적용하고 생각이 안 날 땐 산책도 나가보고 그거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3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다 소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한 10분, 20분씩 쉬어주고 그렇게 훌러가는 것 같아요

되게.. 저희 명양님은 자리에 계속 앉아서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화악! 아악! 했다가 약간 어... 하다가 화악! 하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서 단디님 MBTI는? INFJ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되게 신기하다 인플루언서 개발자 잘 못봤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회사의 어떤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게 막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스타트업이 그런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만들어 나가는게 재밌는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전부터 멋진 회사, 동료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동료를 만들고 싶다 네, 지금 있는 곳에서도 사실 그렇게 수년된 개발하시는 분이 없어서 뭐, 지라... 뭐 지바노션, 슬랙, 그리고 깃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하도 안써요 저도 잘쓰는게 아니라 도입단계라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뭐 회사에서 이전에 일할때는 그런것들을 다 썼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저 혼자 개발하는데 쓸 필요가 없어서 많이 쓰고 있는거에 가까워가지고 그런 어떤 이제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케이스도 많아가지고 저는 확확 뒤집는 걸 이게 이제 어떻게 답이 정해진 제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 네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서로 힘들

더라구요 그쵸 그쵸 약간 파란반장한 인생을 살아와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복 가능성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단님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비전이 있을 거에요 있을 수 있을텐데 그거랑 회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단님은 이제 어... 고객 한명이... 이게...이게 너무 불편하대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제 담임이 만약에 최전선에서 UI를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나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애 근데 재가...아 우린 지금 데이터 쌓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보다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 반해서 그 부분을 더 빨리 개선해야 돼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상황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케이스를 하나 봤었거든요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확실한 기술 담당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있었는데 이제 투자자가 소비자 반응이 되게 민감했어가지고 계속 구성한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망했었던 사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뚝심을 갖고 가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항상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잘 못 가듯이 항상 리더의 말을 존중해야되는거고 그렇게 리더와 함께 소비자 반응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팀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팔자로 일을 하면서 네 저는 약간 공격적인 팀에서 많이.. 아 팀은 아닌 데.. 저희 동료 중에 공격적인 분이 많아서.. 공격적인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쿠션을 안 쓰는 거죠. 예를들어 코드 리뷰를 서로 해주는데 로봇처럼 말을 하는거죠 서로 이 코드를 왜 이렇게 썼는지 그때 제가 이제 그 의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 적으로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발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관점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든 빨리 기능을 완성시켜야지

투자자들한테 돈도 벌 수 있는데 개발자들은 거기서 누구는 이제 회사에 그걸 따라가자 하고 누구는 이건 지금 스파게티 코드만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일을 더 만드는 거니까 이거 딱 뒤 역할을 엎어야 된다 여기서 막 싸우고 나가고 막 이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개발자분을 데려오는 관점에서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인티전데 아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세거든요 엄청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분이 들어왔는데 충돌을 했는데 제가 안쳐주고 제 관점을 고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엄청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 되 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저 멘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하잖아요 뭐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던가 의견충돌 예를 들어 막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있고

근데 이게 맞는 대답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되 그래도 오는 길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가치관적이지만 뭔가 이렇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고 그게 누군가가 잘못된게 아니라 어떻게 타협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나는 리더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가? 어, 그거는 어, 네.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가... 내 월급 주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사람과 말을 해서 이걸 이해할 때까지 이해하고 넘어가겠어. 이런 사람도 봤고

그럼 그냥 어쨌든 저 사람이 저 도메인을 더 잘 할 거니까 일단은 따라가 보자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여러 케이스를 저도 만나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세피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의가 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다만 같이 일하는 동료를 너무 불신하지 말고 그 흑백요리사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재밌습니다 일단은 존중하게 일단 합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4시간 주 7일 일하고 있구요 자는 시간 빼고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약간 뭔가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 저렇게 까지?라는 걸 많이 봤어요. 저희도 이제 올해 창업을 하고 진짜 많은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저는 진짜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성장이 개발자로 7년 일할 때랑 상업해서 고작 8-9개월 일한게 제 스스로 3배 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개발적으로 기술적이라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나 왜 저렇게까지 해?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팀원도 어느정도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는 진짜 저까지 하는 구나 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진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보셨을지도 있지만 거기 잘 안적혀있겠지만 저희는 그 사람들을 돋고 싶은 마음에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게 중요한 가치관일 수도 있으니까 아 네

7개월정도 됐구요. 11월까지 저희가 지원사업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구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들을 지으려고 하고 앞으로도 단님도 합류했을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여줄거고 그래서 팀 빌딩 자체를 진짜 제대로 같이 하실 분들만 진짜 같이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프리랜서로 하려고 하고요.

고문으로서 AI 데이터 엔지니어 한 분이랑

네 진짜 신경, 정신과 전문의 분 한 분 고문 이렇게 있어요

지금 미래전략 이런 것들을 다 짜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회사로서

회사가 될 거고, 여기에서 정말 큰 가치를 사실 저는 느끼고 있고 닷님께서 분명히...

할거여가지구 네네 어 저는 하고싶습니다 투자 충분히 할 의향이 있고 과거도 돼 있어서 이렇게 빠른 결정 처음 봐요 애초에 지원을 할 때 마음을 먹고 지원을 했어서요 진짜요? 거기 적힌 거 별거 없는데 다른 데도 찾아봤죠 저희 회사요? 회사는 아니어도 많이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네, 각오하고 지원을 넣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상치 못하게 오랜 시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가능하면 다음 주 내로 이제 저희랑 한번 더 아마 같이 기술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같이 가볍게 코딩 좀 해보고 그 정도 과정 두 개 정도 과정 같이 거치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번에 이제 단님이 기술 얘기 저희랑 한 번 더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저희 가능하면 저희 고모님 스케줄 되면 같이 들어와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라기보다는 어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네 그 정도를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도

물론 개발자분이랑 같이 일을 안해봤지만 제가 올해 창업하면서 느낀 부분은 실력도 중요하죠 근데 그 실력이 저랑 핏이 그게 실력이더라구요 저랑 핏이 맞느냐가 저한테는 그게 실력이라고 느껴졌고 그 부분을 이제 핏이 서로가 맞는지 그 부분을 알아가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그 부분을 조금 저희 고모님 시간 내시면 고모님까지 아니면 저희끼리 이렇게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그게 좋았다. 그러면은 문자를 주셨으니까 저도 문자로 드리는 게 좋을까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고모님한테 물어보고 괜찮은 스케줄 여러 개 해가지고 다음 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얼른 들어가셔서 네 주말인데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aDGcUwz6lwnlMrj1bRsqMQwRm-Hrhzl-ZnBKgoFPP8/edit?copiedFromTrash&tab=t.4pzorcccaq44>